

보도 일시	2022. 11. 8.(화) 09:00	배포 일시	2022. 11. 8.(화) 09:00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책임자	과장 배양희 (044-203-2751)
		담당자	사무관 김준환 (044-203-2758)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스페이스 워크’, 2022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상 수상

- 11. 8. ‘2022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우수 생활공간 6곳 시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사)한국건축가협회와 함께 지역공원에서 지속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포항의 ‘스페이스 워크(SPACE WALK)*’를 ‘2022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의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했다.

* 소유·운영자/기획 및 기증자/작가/건축가 : 포항시/ (주)포스코/ 하이케 무터 & 울리히 겐츠(Heike Mutter & Ulrich Genth)/ 디자인투프로드క్ష션(Design to production), (주)나인디렉터스앤컴퍼니+ 나인아키텍처스 건축사사무소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품격 있는 생활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06년도부터 수여해 온 상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 등으로부터 작품 37개를 추천받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박성준)를 통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 공간의 가치를 실현하며 그 장소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간을 기획하였는가,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이루어졌는가 등의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6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된 ‘스페이스 워크’는 포스코가 지역사회인 포항시와 상생 협력하고자 2001년에 200억 원을 기부해 포항 환호공원 지역에 상징 조형물을 조성,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공원으로만 머물렀던 환호공원을 대한민국의 명소로 만들었다. 심사위원회는 포스코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포항의 훌륭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었고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기업의 좋은 사회 환원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밀락더마켓*’이 수상한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 조성된 ‘밀락더마켓’은 주변이 바다 조망인 아파트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유지의 고층 개발, 분양이라는 일반적인 사업공식에서 벗어나 저층 개발, 수평적 상징물이라는 계획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조망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한 공공공간이다. 심사위원회는 민간기업이 수익보다는 시민들과 함께 나누려는 의지로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간이 지역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민간이 주도한 공공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 소유자/건축가 : (주)삼미/ (주)엘제이엘건축사사무소 이승진, (주)이권건축사사무소 이주형, (주)이일공 송주현

이 밖에 ▲ ‘별이 내리는 숲 제주 어린이 도서관(제주도서관,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주) 이은경)’은 좋은 거리·광장에 수여하는 거리마당상(장관상)을, ▲ ‘물빛나루쉼터(진주시, 한양대학교 김재경, 건축사사무소소윤 정창운)는 자연친화적 쉼터에 수여하는 누리쉼터상(장관상)을, ▲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강남구청,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 (주)전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전이서)는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공간문화를 조성한 장소에 수여하는 두레나눔상(장관상)을, ▲ ‘순천부읍성남문터광장(순천시, 이소우건축사사무소(주) 김현수, 안영주)’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잘 활용한 장소에 수여하는 우리사랑상(장관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11월 8일(화), ‘2022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공간들에 대한 사진과 영상물 등 이미지 자료들은 ‘2022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기간(11. 8.~13.) 동안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된다.

붙임 2022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수상작 개요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책임자	과장	배양희 (044-203-2751)
		담당자	사무관	김준환 (044-203-2758)
<공동>	(사)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	책임자	부장	한창호 (02-743-8672)



□ 대상(대통령상): Space Walk(스페이스 워크)



소유자: 포항시

운영자: 포항시

기획 및 기증자: (주)포스코

작 가: 하이케 무터 & 울리히 겐츠(Heike Mutter & Ulrich Genth)

건축가: 디자인투프로덕션(Design to production), (주)나인디렉터스앤컴퍼니+ 나인아키텍터스 건축사사무소

위 치: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산8

○ 설명

기획부터 완성까지 총 2년 7개월이 소요된 SPACE WALK는 포스코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은 물론 포항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추진했으며, 작년 11월 포항시에 기부됐다.

공공 문화예술이라는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평범한 공원을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개선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작품과 교감하고, 시각을 넘어 촉각, 청각 등을 통해 작품을 실제 체험함으로써 예술과 관람객이 하나의 풍경이 되는 새로운 개념의 체험형 조형물이다. 체험형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치 환경 및 각종 자연재해를 고려한 설계를 하였고 100% 포스코 강재 사용으로 튼튼한 조형물이 되도록 하였다.

SPACE WALK는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의 대표 사례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다양한 관람객이 모여들어 문화수준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다채로운 풍경을 알리고 사진 및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지속적인 좋은 공간으로서 SPACE WALK 가꾸기 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건립 이후에도 끊임없이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SPACE WALK는 건립 9개월 만에 내방객 8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 최우수상(국무총리상): 밀락더마켓



소유자: (주)삼미

운영자: (주)키친보리에

건축가: (주)엘제이엘건축사사무소 이승진, (주)이권건축사사무소 이주형, (주)이일공 송주현

위 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3-31, 113-40

○ 설명

밀락더마켓이 위치한 민락매립지는 광안리해수욕장 동측에 위치하며, 1980년경 간척사업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러 도심화까지 이뤄진 장소이다. 사이트는 매립 당시부터 미개발지로 남아있었으며, 고층아파트와 오피스텔로 둘러싸여 거대한 도심 속의 공동과 같은 나대지의 모습이였다. 여러 시행사들의 고밀도 개발을 바탕으로 한 사업제안이 있었으나 사업주는 ‘고층개발·분양’이란 최대수익의 개발논리에서 벗어나 저층형, 수평적 랜드마크를 택해 공공성과 자연과의 조화, 또한 시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개발을 추구하였다.

보행자가 접근하기 쉬운 낮은 매스를 형성하고 인근 주거영역 저층부의 상업영역 층고와 조화를 이루는 도시맥락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를 설정하여 주민들의 조망권을 보호했으며, 자연과 사람, 로컬과 문화, 지역과 장소를 연결하는 개방형 복합문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간결한 박공형 매스는 부둣가의 넓고 수수한 창고의 형태를 닮았으며, 시각적인 위압을 주지 않도록 3개로 분절되었다. 바다와 연접한 남측부는 유리파사드로 비워내어 인접 고층 건물들의 풍경 속에서 도시경관적 변주를 이루며, 외부공간을 끌어들인 내부광장은 바다와 도시를 연결하고, 거대한 공유의 공간을 만들어내어 바다로 향한 시각적 연계, 소통과 휴게의 공간, 다양한 문화와 이벤트들을 품을 수 있는 매력적이며 생동감 있는 시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완성되었다.

□ 우수상(장관상)거리마당: 별이 내리는 숲 제주 어린이도서관



소유자: 제주도서관

운영자: 제주도서관

건축가: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주) 이은경

위 치: 제주도 제주시 이도이동 414

○ 설명

제주 어린이도서관은 제주의 자연을 단면으로 읽고 이를 층별로 특별한 주제공간을 담고자 하였다. 도서관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바닷속, 바닷가, 꽃자왈, 백록담, 하늘의 주제로 이어지며 열린 공간과 작고 흥미로운 공간들이 연속적인 관계로 구성되었다. 유아부터 초등생, 이와 동행하는 어른들까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수직적으로는 연속적인 이야기로 엮이고, 수평적으로는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전체를 통합적인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지하층부터 4층까지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열린 공간과 책놀이터, 미디어실, 수유실, 프로그램실과 프로젝트실, 별빛지기 등대, 다목적홀, 시청각 자료, 작가의 방 및 공연장과 장애아동의 체험장 및 독립적인 모임 공간과 같이 흥미롭고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 우수상(장관상)누리쉼터: 물빛나루쉼터



소유자: 진주시

운영자: 진주시

건축가: 한양대학교 김재경, 건축사사무소소운 정창운

위 치: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로 195

○ 설명

물빛나루쉼터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남강을 관광 자원화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남강 수상 레포츠센터 건립사업의 일환이며, 남강 유람선 ‘김시민호’승선을 위한 매표소 및 관광객들의 휴게공간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해 ‘물빛나루 쉼터’는 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의 중요 세부 사업 중 하나이다. 이 사업은 김시민호 야간운항, 경관 조명 정비, 하모 전시물 설치와 함께 남강변의 야간관광자원 활성화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계획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외부에서도 전면 유리를 통해 내부의 조형미를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남강변의 경관 개선에 기여한다.

축석루를 중심으로 남강변 동쪽에 위치한 경남문화회관을 서쪽에서 대응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의 역할을 하며 축석루의 지붕 곡선과 기둥 및 다포 형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설계 개념으로 계획되었다. 구조와 내외장재로 목재를 사용하여 진주시의 친환경 도시로의 비전을 실현하였으며, 공공건축으로 시민들이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도시의 풍경을 색다르게 경험하는 명소이다. 쉼터의 전면과 좌·우측 3면은 열려 있어 방문자들은 주변 환경이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해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진주의 명물인 유등축제에서 내부 조명에 의해 쉼터 자체가 유등이 되어 남강을 비추는 경관 개선의 성과도 가지고 있다.

축석루가 몇백 년을 지나 계속 발전했다면 어떤 모습을 지녔을까? 특정 계층을 위하고 특수한 목적을 가졌던 누각 건축은 기술의 발전과 공공성의 대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다르게 진화하였을지도 모른다. 빛의 루는 이러한 상상 속에서 만들어졌다. ‘빛의 루’는 새로운 누각이며 21세기 축석루이다.

□ 우수상(장관상)두레나눔: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



소유자: 강남구청

운영자: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

건축가: (주)전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전이서

위 치: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디에이치자이개포 커뮤니티 시설 1층

○ 설명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는 해당 아파트의 아이들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공공간이다.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다른 형태의 집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어린 세대들에게 특별한 나의 집, 나의 공간이란 개념은 마을의 공간적 경험을 주고, 집과 학교 사이 시간에 아이들이 센터라는 기관이나 학원에 있는 느낌이 아닌 자신들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하였다.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의 융합형 공간으로 키움센터 홀의 입구에 작은 집과 미끄럼틀을 길게 연장한 쿠션트랙을 놓았다. 실내이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기도 하고, 옆드려서 긴 캠퍼스를 깔아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였고 아이들은 스스로 주어진 공간을 이용하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며 그들만의 놀이의 장소로 만들었다.

주로 놀이공간과 공부공간, 동적공간과 정적공간이 정확히 분리되어 있는 기존의 키움센터 구조에서 벗어나 동적공간에 놀이와 도서관이 함께 있어 책을 자연스럽게 가깝게 하고, 그 경계를 지웠으며, 아이들의 크기에 맞는 작은 집, 구름방과 캠프방 등의 입체적 공간의 제공으로 학습 위주의 기능적 공간을 넘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감성적 공간으로 다가가 아이들이 스스로에 의해 재구성되는 아이들의 자율형 공간을 시도하였다.

□ 우수상(장관상)우리사랑: 순천부읍성남문터광장



소유자: 순천시

운영자: 순천시

건축가: 이소우건축사사무소(주) 김현수, 안영주

위 치: 순천시 중앙로 95 일원

○ 설명

순천부읍성남문터광장은 2016년 순천예술광장 국제아이디어건축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작품을 2021년에 준공하여, 현재 순천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지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순천의 문화, 예술행사를 위한 문화놀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지상에는 도심의 일상 휴식공간으로 그늘을 드리우는 이팝나무와 다양한 식생을 가진 공원을 조성하였고, 지하층에는 선큰 광장으로 비워진 공간을 중심에 두고 도심의 문화, 예술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전시관과 다목적교육실을 공원 아래 분산 배치하였다. 그리고 회랑과 파빌리온을 통해 옥천의 수변과 주변에 위치한 중앙시장, 순천부읍성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의 거리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순천부읍성남문터광장 주변의 역사적 자원과 문화적 자산을 활성화하여 순천 원도심의 문화 활동 거점으로 작동하며, 급격한 도시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순천 원도심까지 순천만 국가정원이 가진 생태도시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순천부읍성남문터광장은 원도심 재도약에 기여할 뿐 아니라, 도시 전체가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열린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순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